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03 19 ()

江原日報

13

“낙시배 무분별 문어 포획 금지하라”

속초시총연승聯 등 어민들 집회 “생계 큰 타격”
시 “영업구역·시간 조율 방향 재협의 상생 추진”

【속초】속초지역 문어잡이 어민들이 낙시배의 무분별한 문어 포획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낙시배 문어잡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속초시총연승연합회와 선외기협회, 자망협회 어민들은 18일 속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낙시배의 문어 포획 문제는 7년 동안 지속된 문제임에도 지금까지 시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다”고 성토했다.

문어잡이 어민들은 20일까지 시청 앞에서 관련 조례 제정

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성춘 속초시총연승연합회장은 “해안선 길이가 짧은 지역 특성으로 낙시배의 문어 낚시를 허용하면 연승어업인들에게 큰 타격”이라며 “생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강원도의회가 문어 포획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발의했던 ‘강원도 낙시배 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문어 포획 전면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제동을 건 사례가 있어 속



◇속초지역 연승어업인들은 18일 속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낙시배의 문어 포획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초시의 조례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과도한 행정적 제한 및 재산권 침해 문제도 걸림돌 중 하나다.

속초시 관계자는 “그동안 분쟁해결을 위해 17차례 간담회를 열어 협의했지만 문어 포

획 전면 금지 외 다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낙시배의 낚시도구,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연승어업인-낙시어업인 양측과 재차 협의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江原日報

2024 03 19 ()

14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회장: 이진수) 정기총회가 18일 태백시지회 대강당에서 고재창 시장의, 신옥화 부시장, 이한영·문관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3 18 ()

[홍천군] 신영재 홍천군수, 제47회 강원자치도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참석

김재우 기자



신영재 홍천군수는 16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강원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영록 의장, 홍성기 도의원, 용준식·김광수 군의원, 신은섭 군체육회장 등 각 기관 태권도 연합회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했다.

강원종합뉴스 영서취재본부 김재우 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3 19 ()



10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은 19

일 오후 2시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악의날 제정을 위한 강원권 간담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4 03 19 ()

21

◇심오섭도의회 사회문화



부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악의날 제정을 위한 강원권 간담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4 03 18 ()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정선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이무철(춘천) 도의회 경제산업부위원장, 양숙희(춘천).박찬홍(춘천).임미선(비례) 도의원은 19일 오후 6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악의날 제정을 위한 강원권 간담회에 참석.

하석균(원주) 도의회 기획행정부위원장, 류인출(원주).원제용(원주) 도의원은 19일 오후 4시 원주문화원에서 열리는 원주문화원 창설 130년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은 19일 오전 11시 인제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9일 오후 6시 속초시 교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교동 주민자치위원회 3월 정기총회에 참석.

2024 03 19 ()

강원도민일보

기업혁신파크 개발 더존·춘천시 '속도전' 강원도 '신중론'

04

도·춘천시·더존 첫 현장점검

내년 계획 수립 2033년 입주 완료
국제학교 설립 등 세부사항 이전“여의도 못지 않은 훌륭한 도시로 만들
겠다.”

김진태 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이 18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사업 부지를
찾은 가운데 김용찬 더존비즈온 정밀
의료 도시개발사업단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9364억원이 투입되는 춘천 기
업혁신파크를 여의도에 버금가는 도시
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다.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
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자족적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춘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더존비즈온이 엔지니어
기업이다.

강원도와 춘천시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사업이 확정된 이후 이
날 처음 마주앉았다. 사업부지인 근린
춘천시 남산면 광판중학교에 모인 김
지사와 육 시장, 김용찬 대표는 어렵게
따낸 기업혁신파크를 조속히 조성하자



18일 김진태 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의 춘천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현장을 방문, 더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정호

는데 뜻을 함께했지만, 세부 사항은
달랐다.

민간기업인 더존비즈온은 국제학교
와 호텔 등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다. 김 대표는 “도시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초·중학
교를 개축해 (춘천시에) 드리고, 새로
운 고등학교도 들어와야 할 것”이라며
“원하는 게 있다면 제주도형 국제학교
다. 좋은 인력을 뽑아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 목적 자
체가 특화된 데이터센터로 조성해 데
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가 필요한 컨
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의료진이나 연구원이 숙
식을 할 수 있는 호텔 등 공간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도시를 만드는 구조”라고
했다. 육동한 시장은 김용찬 대표의 주
장에 궤를 같이하며 속도전을 강조했
다. 육 시장은 “기업도시 특별법에 국

제학교 설립 근거가 있다. 이 지역은 국
제학교가 가능한 지역”이라며 “(국제
학교의) 선도지역이 될 테니 춘천시는
국제학교 설립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
다”고 했다. 이어 “광장히 속도를 내야
하는 사업”이라며 “주민들도 그렇고 정
부도 (사업 초기에) 힘이 실리지 않은
면 어렵다.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
고 했다. 육 시장은 앞서 주민대표와 간
담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는 신중론을 폈다. 김지사는
“국제학교는 도 단위 차원에서 고려해
야 할 게 많다”며 “여기에 (기업혁신파
크)한다고만 돼 있다. 시민들은 어
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주체는 누구
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신중히 역할을
분담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
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지사는 기
자간담회를 갖고, “계획대로 추진하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날 사업 로드맵을
일부 제시했다. 춘천시와 더존비즈
온, 신한은행은 이 사업을 추진할 특수
목적법인인 을해 11월 공동 설립한
다. 법령 상 사업비의 10%인 1000여
억원을 법인에 출자해야 하는데, 더존
비즈온이 65%를, 춘천시와 신한은행
이 각각 20%·15%를 낸다. 사업 통합
개발계획은 2025년 말까지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등 각종 인허
가를 2026년 말 끝내는 게 목표다. 이
듬해 착공에 들어가 2029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치고, 2033년까지 기업과 주
민 등의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김덕형

▶ 관련기사 8면

강원도민일보

2024 03 19 ()

08

춘천시 기업혁신파크 전담부서 만든다

육 시장, 광판리 주민과 면담

“주민 입장 반영해 추진할 것”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예정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전담 부서를
신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민
들에게 약속했다.

육동한 시장과 광판지역 주민들 간
간담회가 18일 오후 광판1리 마을회
관에서 열렸다. 지난 11일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육동한 시장이 해당 지역 주민

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육동한
시장은 사업 전개 과정과 이후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
민들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더
불어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대덕 광판1리 이장은 “선정이 확
정됐으니 이제는 빠른 속도로 추진해
야 한다”며 “진행이 더디면 서로 지칠
수 있다”고 했다. 김광수 광판2리 새
마을지도자는 “기업혁신파크를 설
계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마찰없이 성공할 수 있다”

며 “설계도를 먼저 그려놓고 실행하
겠다고 하면 주민과의 갈등이 불가피
하다”고 했다.

육동한 시장은 “현실적으로 경쟁
을 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 모든 것
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어디까지가 사업 구간으로 경계가
그어질지가 핵심이 될 텐데 생업을 이
어온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도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
록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
다.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의 조속
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6급 팀장급인 전담부

서를 5급 사무관급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식 부서로 신설할지 TF
형식의 한시적 조직이 될지는 정해
지지 않았지만 7월 단행될 정기인사
와 조직개편 전에 전담부서가 필요하
다는 게 시청 내부의 입장이다. 광판
리 주민들은 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광판 1리 이장을 중심으로 대책
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사업에 선정됐
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때”라며 “차질없이 착
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오세현·박재혁

江原日報

2024 03 19 ()

02

김진태 지사 “尹 대통령 약속 현안사업 전담기구 구성”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12개 현안과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尹 대통령이 약속한 12개 과제를 3

개 분야로 나눠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현안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면서 “전략추진반을 중심으로 실무지원반, 연구지원반, 시·군협력반을 꾸렸고 도청 소관 실·국은 물론 강원연구원, 시·군에서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별로 하나하나 직

접 챙길 생각으로 당장 오늘 춘천 기업혁신파크 현장 점검부터 하면서 애로사항 등을 듣겠다”면서 “정부에서 제시했던 인센티브를 기업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고 기업 입주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 03 19 ()

15

정선군, 드론 띄워 산사태 사전 예방

【정선】크고 작은 산사태와 낙석 발생이 자주 발생하자 정선군이 드론을 활용한 산사태 사전 예방에 나선다.

군은 올해 1억1,000만 원을 들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탈면 103개소를 대상으로 무인체(드론)를 활용한 비탈면 영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이 산사태 방지에 드론 투입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정선읍 세대 피암터널 산사태에서 드론이 산사태 징후를 사전 포착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군도·농어촌도로 비탈면 103곳 영상 관리

재해 감시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당시 피암터널은 1만3,000여 톤에 이르는 대규모 암반이 붕괴되며 산사태를 발생시켰지만, 드론으로 사전에 산사태 징후를 포착한 정선군이 도로를 차단하면서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군은 관리 대상인 비탈면의 좌표와 표고를 무인체에 입력한 후 드론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붕괴 가능성을 신속히 판단,

대규모 자연재해를 조기 감지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는 급경사지·비탈면에 ‘센서’ 등을 설치해 붕괴 징후 및 변위를 감지하는 기존 방식보다 예산 절감과 운영 인력의 간소화, 활용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도로 비탈면

등에 드론을 투입하는 한편 정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만준 군 건설과장은 “백두대간 중심에 위치한 정선의 경우 산세가 험하고 도로와 인접한 비탈면이 많아 군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며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

2024 03 19 ()

강원도민일보

01

교육발전특구 선정

‘속 빈 강정’ 전략 불만

정부 특구 발표에만 급급했나



춘천·원주·화천이 지난 달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으나 당장 지자체로 예산 교

부가 어려운데다 그마저도 크게 줄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세밀한 법률 검토 없이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각 지자체와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최근 협의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협의회는 지자체 실무진들이 교육부에 불만을 쏟아내는 성토의장이 됐다. 교육부를 향해 ‘이렇게 사업하면 망한다’는 거친 표현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예산 교부방식 때문이다. 특구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 주도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 예산은 지자체가 아닌 각 교육청에 교부되는게 문제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면, 교육청은 재차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지자체에 위치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는 교육부 예산을 직접 받지 못하고 자체 예산을 수립해 계획된 사업들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춘천·원주·화천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가 매칭하게 되었으나, 교육부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지자체 예산을 세울 때 ‘매칭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해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서 사업 전반적 구상 불구
지원 예산 직접 아닌 교육청 교부
교육부 당초 약속 연 100억원
시·군당 30억원으로 축소 논란

최문순 화천군수는 18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업의 전반적인 구상은 지자체가 했는데, 예산을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면 사업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교육사업은 단순히 비례식으로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정말로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원예산 규모도 논란이다. 당초 교육부가 약속했던 지원 규모는 최대 연간 100억원이었으나 일괄 30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 관계자는 “교육부가 처음에는 100억~30억원이라고 하더니 최근 만난 자리에서는 시·군당 30억원이라고 못 박았다.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모양새다”라고 했다. 원주시 관계자도 “교육부에 문제점을 전했더니 ‘내려보낸 예산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분야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라’는 답을 했다”고 토로했다. 정민업

강원도민일보

2024 03 19 ()

12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경제 활성화 기대

국도 56호선 이설공사 6월 착공
2032년까지 1000여명 고용 창출
“지역 업체·주민 참여 방안 모색”

홍천군화촌면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2026년 본격 착공되고 이에 앞서 인근 국도 이설공사는 오는 6월쯤 시작된다. 군은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천군과 한국수력원자력 홍천양수건설소가 추진 중인 홍천 화촌면 풍천리 366번지 일원 153만여㎡ 면적에 300mW 2기 규모로 들어서는 가변속 양수발전소는 2026년 착공,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홍천군은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도 56호선 이설공사를 538억원을 들여 오는 6월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



홍천군은 최근 군청에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국도 56호선 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진 중이다. 연장 3.14km, 폭 9.5m 규모로 이설되는 이번 도로 공사는 3개 시공사(진흥기업 70%, 중미건설 15%, 더파크건설 15%)가 참여한다. 군은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강원 특별자치도와 홍천지역 기업을 통해 공사를 진행, 지역업체 생산품 활용,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공사를 통해 연간 약 250명, 총 공사기간에 최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계획이다. 군은 또 고용 창출에 따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한 몫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군청에서 오

홍수부군수를 비롯해 한수원 홍천양수건설소, 시공사인 진흥기업, 중미건설, 더파크건설,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국도 56호선 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향후 세부적인 공종별 실무회의 등을 매월 진행, 회의결과를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홍수 부군수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위원회는 양수발전소, 송전탑 지중화, 204항공대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반대 주민들과 해당 사업들에 대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유승현 yoosh@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19 ()

11

삼척 수소타운하우스 이달 실증 착수

교동 8400㎡ 규모 11동 조성
자체 생산 에너지로 생활 가능
수소 저장시설 막바지 점검 중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한 에너지로 생활 가능한 ‘삼척 수소타운하우스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이달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이 진행돼 주목된다.

삼척 종합운동장 인근 교동 265의 1번지 일원에 조성된 ‘수소타운하우스 실증단지’는 지난해 12월 준공식

을 가진데 이어, 이달말 실증 사업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수소 저장 시설에 대한 막바지 점검이 진행중이며, 전기 생산량을 확인하고 각 주택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종합 통제실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국내 최초 주거부문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강원도, 삼척시 등이 함께 추진한 실증단지는 총사업비 316억원(국비 166.4억원, 민간 103.3억원, 도비 7.5억원, 시비 39.5억원)을 들여 교동 일원 8400여㎡ 부

지에 일반주택 2동과 태양광 주택 3동, 수소주택 1동, 외부 거래형 주택 1동(3세대) 등 모두 9세대와 통합관리동(수소, 태양열·지열, ESS 시설), 홍보관(주민센터) 등 11동으로 조성됐다. 이번 실증사업은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최소 1주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독립 운전이 가능하고, 남은 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저장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기술을 선보인다. 여기에 친환경 건축 기술과 융합된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주거단지 설계, 건설 기술을 통해 수소주택 표준모델 개

발, 주거분야에 있어 수소활용에 필요한 설비·건설 기준 등이 함께 마련된다. 이곳에는 현재 최근 창단한 삼척시 세번째 직장운동 경기부인 궁도팀 선수단이 지난달부터 머물고 있으며, 핸드볼팀 선수단은 오는 5월쯤 입주한다.

시 관계자는 “수소타운하우스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주거단지 내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거래 방법론 등 개발을 통해 수소도시 활성화 및 경제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민

강릉 유소년 축구 인재 산실 우뚝

도지사배 축구대회 주문진중 우승·강릉중 3위 기염
구단-지역사회 연계 선수 육성·인프라 효과 톡톡

강릉시가 유소년 축구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릉 주문진중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홍천 홍천읍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4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축구대회' 중등부에서 우승했다.

강원FC의 15세 이하 유소년팀인 주문진중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2년 연속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대표에 선발됐다.

강릉시민축구단의 15세 이하 유소년팀인 강릉중도 같은 대회에 출전해 3위에 올랐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는 강원FC 18세 이하팀인 강

릉 제일고를 비롯해 문성고, 중앙고 등이 '2024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축구대회' 고등부에 출전해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선발을 두고 경쟁한다. 지난해 우승팀인 문성고와 3위를 기록한 중앙고가 건재한 가운데 강원FC 소속으로 프로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양민혁이 속한 제일고도 2022년 이후 2년 만에 우승 탈환을 노리고 있다.

강릉온리원FC 소속의 김형석과 황석현은 지난달 29일 차범근 축구상을 받으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인정받는 등 강릉지역 유소년 축구 선수들과 팀들이



사진=강원FC 제공

◇강릉 주문진중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홍천 홍천읍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4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축구대회' 중등부에서 우승했다.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강릉은 강원FC와 강릉시민축구단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유소년 육성을 하고 있고, 강남축구공원과 단오 축구 정기전 등 탁월한 축구 인프라와 뜨거운 축구 열기를 갖추고 있어 유소년 축구 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홍현창 강릉시축구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축구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인재 영입과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도자 교육을 통해 지도자의 수준을 높이고 축구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류호준기자 gwhojun@

원주의료원 7월부터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진료 협약... 평일 밤 11시까지 가능
6월 말까지 인력 채용 등 완료... 시 "행·재정적 지원"

【원주】원주의료원이 지역 내 학부모들의 숙원인 소아청소년의 야간 진료를 시작한다.

원주시와 원주의료원은 18일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진료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의료원은 올 7월부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5시30분부터 밤 11시까지 야간 진료를 실시한다.

그동안 지역 내 소아청소년

환자의 야간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정부는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설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8년 도내 유일하게 원주 내 모 소아과 1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6월 인력난 등의 이유로 포기했다. 이후 지역 내 야간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시설 및 기관이 없어 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원주시와 원주의료원은 18일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원주의료원은 올 6월 말까지 야간 진료를 위한 시설 준비와 인력 채용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야간 진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은 "이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통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

며 "주민 누구나 신뢰하고 찾아오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원주의료원에 감사드린다"며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통산을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들은 달빛어린이병원 유지 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필수의료기관 격차 해소를 약속하고 있다.

김인규기자 kiminyu1220@

2024 03 19 ()

江原日報

04

정부-89개 인구감소지역 첫 간담회

철원 등 道12개 시·군 포함
생활인구 확대 등 머리 맞대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철원, 횡성 등 강원자치도 12개 시·군을 포함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은 지역별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지난해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지자체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

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안내했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모(母)펀드는 올해 초 정부 재정(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으로 조성됐다.

이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방법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이무현기자 trustme@

江原日報

2024 03 19 ()

16

27사단 떠난 화천 사내면 상권 휘청

【화천】화천군이 27사단 해체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내면 일대 상권 회복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화천군은 우선 사내면 사창리 일대 정주여건 개선에 들어갔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원을 확보, 장터길 경관을 조성하고 보행자 친화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연계해 2025년까지 총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정주여건 및 경관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내면에 산업단지·파크골프장 조성을 비롯해 커뮤니티센터, 고령자 실버아파트,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

군, 정주여건 개선·산단 조성 등 지역 살리기 안간힘 주민 도시재생사업·15사단 ‘통통데이’ 행사 등 나서



◇화천군이 사내면 상권 회복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15사단 장병들이 사내면 용담 베이커리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양시설, LPG 배관망 구축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명품도시’, ‘토마토 도시’

로 거듭나기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나서는 등 지역 회생을 위해 몸부림하고 있다.

27사단 자리에 배치된 15사단은 매월 15사단을 뜻하는 15일과 27사단을 뜻하는 27일에 ‘통통데이’ 행사를 갖고 지역상권을 이용, 상가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군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던 펜션의 경우 위수지역 확대로 경영난을 겪으며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상가들 역시 빈 점포가 속출하는 등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임성규 화천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사내면의 경우 전에는 점포를 구하기 위해 외지에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점포 구입 문의조차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江原日報

2024 03 19 ()

16

20만명 찾은 한탄강물윗길 핫플 등극

입장권 수익 10억 경제효과 100억 추정
철원 역사 유적·자연환경 가까이서 관람

올해 한탄강물윗길 방문객이 2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탄강물윗길은 18일 현재 20만명의 탐방객이 찾았다. 2022~2023년 방문객 12만명에 비해 8만명이나 늘었다. 군은 입장권 수익도 10억원에 육박하고 경제유발 효과도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탄강물윗길은 태봉대교에서 출발해 순담까지 8.5km 가량의 트레킹 코스로 약 2km 길이의 부교를 설치해 탐방객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했다. 매년 10월 초 개장해 3월 말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지질명소인 송대소와 고석정,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한탄강 현무암 협곡, 등록문화재인 승일교 등 철원의 역사와 문화,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

한탄강물윗길은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의별’로 선정했고 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와 함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과 명예의전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현종 군수는 “3월 말까지 운영되는 한탄강물윗길을 다시 만나려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물윗길을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며 “4월부터 래프팅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철원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원=김대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3 19 ()

/ 19

정부·의사 대화 모색할 때

-교수 집단사직 불사... 합리적 대안 도출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 시기로 잡고 추이를 주시합니다.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하는 일이 생긴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명분과 정부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행여 의료대란으로 확산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여기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느 편이 이기고 지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학병원 등 의료계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포함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들은 지난 15일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시기를 오는 25일로 합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직서 결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5일 전국 의대 교수비대위 회의에는 20개 의대가 참여해 그중 16개가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나머지 4개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동참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대외에 다른 의대로 이같은 움직임이 퍼질 여지도 많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치가 심화하면서, 도내 대학병원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도 중증 응급질환인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수술 등 진료가 불가능하고, 한림대춘천성심병원도 의료진 부재로 인해 뇌경색, 뇌출혈 수술, 담낭담관질환 진료가 어렵습니다.

이젠 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의사들은 의료대란 과정에서 국민들이 의료계에 어떤 인식과 바람을 가졌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내부의 어려움과 사정이 없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대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의사들과 소통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 창구를 가동해 의료대란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9 ()

/ 19

석탄산업 세계유산 기구 설치

-강원도·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수물방관할 때 아니다

6월 폐광을 앞둔 국내 최대 규모 대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수물 폐기 반대 대안으로 떠오른 석탄산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강원도 및 국가 차원의 문화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담할 지방행정 및 민관 합동 2개 상설조직부터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성광업소 폐광 몇 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도강원도와 태백시에서 '석탄산업 유산보존회'와 같은 전담기구조차만 들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일례로 정선군에서는 민영탄광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폐광 6개월 전에 동원탄좌유물보존회를 사북번영회 산하 특별기구로 창립해 광업소 측에 시설물과 장비를 매각에 앞서 지역사회에 기증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다량의 유물을 보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고한지역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시설은 삼탄아트마인이라는 예술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반대로 영월군의 경우는 탄광촌 명물 공중삭도까지 고철로 팔았고, 뒤늦게 '강원도탄광문화촌'을 개관했으나 탄광현장이 거의 사라진 상태여서 활용에 한계를 보입니다.

태백지역의 경우 석탄산업유산과

연관돼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철암역 두선탄장과 장성 이종교 2곳에 불과합니다. 장성광업소 수갱과 장성~철암 구간의 전차갱도를 비롯해 저탄장, 선탄장, 갱목장, 폐석장, 압축기와 권양기 시설, 화약저장고,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갱도부터 깊숙한 지하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화재로 지정 검토가 가능한 목록이라는 것이 전문가 분석입니다. 장성광업소 본관, 노동조합 및 생산부사무실 등 여러 건축물과 내부의 소소한 서랍장 문서까지 문화재 등록에 포함 가능하다고 제기합니다.

1991년 탄전문화연구소를 운영해 온 정연수 소장은 '석탄공사 폐광을 대비한 태백 석탄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지방행정 기구와 탄광연구전문가, 민간단체, 장성광업소 등이 참여한 보존회 설치로 자료수집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석탄산업의 세계유산 등재는 실직 위기에 처한 광업인들의 고용승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강원도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가 먼저 움직일 리 만무합니다. 때늦은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3 19 ()

/ 19

외국인 관광객 유치, 치밀한 서비스 전략 마련해야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해 관광 수입 245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12월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면서 발표한 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유치, 관광 수입 3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위해 올해부터 총력전에 나선다. 때맞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앞으로 국내외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품개발 초청 팸투어, 한국관광공사 공동 핵심시장 대상 강원 관광 로드쇼 개최, '2024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 등 다각적 홍보마케팅에 박차를 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린다. 후방효과가 엄청나고 부가가치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 경우 2023년 90개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연계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2만4,435명, 3만6,134박 유치, 지출액 한화 약 300억원(2,328만3,659달러)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과약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520억원, 취업 유발 549명, 부가가치 유발 150억원 등으로 측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민 1,779.9명분의 소비액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385.5명) 대비 362%

증가한 수치다. 관광산업은 연기 내뿜는 공장이 연상되는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사뭇 다르다. 이동수단이 다양화·보편화되면서 잠재적인 수요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나라마다 관광객 모으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관광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상당수 국가는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올림픽 유산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자치도로서는 관광이 중요한 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돼 온 접근성은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젠 지역 곳곳에 산재한 구슬을 꿰어 보물로 만드는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르고 즐기며 체험하는 관광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와 치밀한 서비스 전략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관광모델 개발도 요구된다. 명소 중심의 관광에 갇히지 말고 음식·한류·스포츠·공연 등 내용 중심의 체류·체험형 여행으로 확산해야 한다. 저가 덩핑 상품, 바가지요금 근절은 기본이다. 섬세한 고품격 서비스 체험이 강원관광의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해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